

# 바즈

## 역할 설명

미사 중 성가 반주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. 회중과 성가대가 노래할 수 있도록 리드하되, 반주가 노래 소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에요.

## 준비사항

- 미사 30분 전 도착해서 악기 세팅 및 음향 체크
- 당일 성가 목록 미리 확인하고 전주 연습
- 처음 연주하는 곡은 최소 전날 연습 필수
- 악보 출력 또는 태블릿 준비 (핸드폰은 화면이 작아서 비추)
- 음향 담당자와 미리 볼륨 체크
- 단정한 복장 착용

## 수행 방법

### 기본 원칙

- 전주는 회중이 곡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(최소 1절 전주)
- 템포는 회중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속도로, 너무 빠르게 하지 않기
- 성가대나 선창자가 있으면 그 사람 속도에 맞추기
- 후주는 사제나 해설이 다음 순서로 넘어갈 때까지 이어서 연주

### 성가대와의 균형

- 악기 볼륨이 노래 소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균형 유지가 핵심
- 음향 담당자와 리허설 전 볼륨을 맞추고, 성가대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조절
- 반주는 성가대를 '지지'하는 역할, 반주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됨

### 전례 시기 반영

- 사순 시기 (현재 2026년 2월 말~부활절 전): 화려한 전주나 빠른 템포는 피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분위기로 연주
  - 대림 시기: 차분하고 기다리는 느낌의 연주
  - 부활·성탄 시기: 밝고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로 연주
  - 연중 시기: 평온하고 차분하게

## 자주 하는 실수

- 템포가 너무 빨라서 회중이 못 따라오는 것
- 전주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 → 회중이 어떤 곡인지 모름
- 악보 페이지 넘기다 박자 놓치는 것 → 미리 페이지 구성 확인
- 볼륨이 너무 커서 노래 소리를 덮는 것 → 성가대 소리 들으면서 조절
- 전례 시기 분위기를 무시하고 항상 같은 스타일로 연주하는 것

- 성가 목록은 미사 전날 받아두고 미리 연습하세요
- 태블릿에 악보를 넣어두면 페이지 넘기기가 훨씬 편해요
- 사순 시기에는 '덜 화려하게'가 정답이에요. 절제된 연주가 더 아름답습니다